

- 주요 뉴스: ECB, 7월 0.25%p 금리인상 예고 이후에는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도 가능
 - 미국 재무장관, 높은 인플레이션 불구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은 편
 - 중국 주식, 코로나 제로 정책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
 - 중국 5월 수출, 경제봉쇄 완화 등으로 증가. 향후 전망은 불투명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제감 확대되며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2.4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상승[+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관련 불안 등으로 투자심리 저하
유로 Stoxx600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1.4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유로존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 차별화 우려 등이 배경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9%,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
독일은 ECB의 7월 금리인상 신호 발신 등으로 8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64.2원, +7.3원) 0.6% 상승, 한국 CDS 상승

주가					환율				
		6/9일	6/8일	전일대비			6/9일	6/8일	전일대비
	미국	4,017.8	4,115.8	-2.38%	국채 금리 10y	미국	3.04%	3.02%	2bp
	유럽	434.38	440.37	-1.36%		독일	1.43%	1.35%	8bp
	중국	3,239.0	3,263.8	-0.76%		한국	45bp	43bp	2bp
	일본	28,247	28,234	0.04%	CDS 5y	중국	70bp	69bp	1bp
	한국	2,625.4	2,626.2	-0.03%		EMBI+	-	387	-
	달러지수	103.31	102.54	0.75%	위험 지표	VIX	26.09	23.96	8.89%
	유로화	1.0617	1.0716	-0.92%		WTI유	121.41	122.11	-0.57%
	엔화	134.36	134.25	-0.08%	원자재	구리	438.1	445.5	-1.65%
	위안화	6.6925	6.6838	-0.13%		금	1,848.0	1,853.4	-0.29%
	원화	1,256.9	1,253.8	-0.2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, 7월 0.25%p 금리인상 예고. 이후에는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도 가능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7월 주요 정책금리의 0.25%p 인상 의지를 밝혔으며, 동시에 현행 인플레이션 전망이 유효하다면 9월에는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(0.5%p)이 적절하다고 발표. 다만 9월 이후에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방침. 한편 당초 계획대로 매월 2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7월 초부터 종료할 예정
-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리스크를 거론. 특히 이전과는 반대로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. 아울러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단호하다고 첨언
- 한편 금년과 내년의 역내 성장률 전망을 낮춘(각각 3.7%→2.8%, 2.8%→2.1%) 반면,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(5.1%→6.8%, 2.1%→3.5%).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(1.43% +0.08%p). 이는 이번 결과가 매파적(hawkish)이라는 평가 등이 반영
- 블룸버그의 David Powell은 ECB가 당초 예상보다 명확한 금리인상 경로를 제시했다고 분석. 한편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 채권시장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는 0.25%p 인상을 통해 점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
- 일부에서는 ECB의 긴축 전환이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역내 국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.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개별국가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높은 인플레이션 불구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은 편

- 옐런 장관은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나, 경기침체를 제시하는 징후는 없다고 강조. 한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라고 언급

■ 미국 6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월 이후 최고치. 고용 여건은 양호

- 해당 청구건수는 22.9만건으로 전주(20.2만) 및 예상치(21만) 모두 상회. Oxford Economics의 Nancy Vanden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수요가 양호한 상태이나 최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

■ Allianz의 엘 에리언,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

-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있으나,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. 또한 주거비와 식품가격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

■ JP 모건, 증시에서 강세장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존재

- Nikolaos Panigirtzoglou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식 보유에 대한 헤지가 감소했고, 이는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낮다는 의미로 강세장 징후일 수 있다고 언급. 또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도 존재한다고 부연

■ 영국 총리, 공공부문 지출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

- 존슨 총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임의적으로 정부지출 확대 혹은 임금인상 등을 유도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.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경제 개선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첨언

■ 중국 주석, 코로나 제로 정책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

- 시진핑 주석은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사회안정 유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단호하게 극복하도록 지시. 이번 발언은 경제봉쇄의 여파로 확대되고 있는 성장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

■ 중국 5월 수출, 경제봉쇄 완화 등으로 증가. 향후 전망은 불투명

-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.9% 증가하여 금년 1월 이후 최고치. 또한 전월(3.9%) 및 예상치(8.0%) 상회. 다만 일부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,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 등의 대외 여건은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지적
- 한편 같은 기간 수입은 4.1%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. 이는 공급차질 완화 등에 기인. ING의 Iris Pang은 글로벌 수요가 작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낸다면 적어도 수출은 3/4분기까지 15% 내외의 증가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1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소비자물가, 6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 중국 5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, 다양한 물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 - 블룸버그

(Don't Be Fooled by Conflicting Inflation Metrics. The Fed Won't.)

- 최근 PCE 물가는 추세 전환 양상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(CPI)의 경우 고물가 지속이 관측. 이러한 차이는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관한 논쟁을 초래. 양 지표가 다른 신호를 보낸 것은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원인
- 작년 연준의 경우 일부 물가 지표에만 집중하여 고물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오판을 초래. 이에 정확한 인플레이션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야 하며, 연준도 향후 이러한 원칙을 따를 것으로 기대

■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 위험자산 가격 상승, 저가매수 등에 기인 - Financial Times

(Anatomy of a risk rebound)

- 5월 중순 이후 S&P 500 지수의 8% 상승, BBB 및 CCC 등급 채권의 스프레드 축소 등 최근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.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인한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
-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그 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자산을 선택적으로 집중 매입하기 때문. 유가 상승 혜택이 기대되는 에너지 관련주 제외 시, 최근 주가 상승은 연초 이후 하락 폭이 컸던 기술 및 경기순환 관련주가 주도
- 통상적으로 경기우려가 확산될 때 관측되는 투자자의 대형주 선호 심리도 위험자산 가격 상승에 일조. 대부분의 섹터에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상승률이 높은 편

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,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불구 지속 예상 - Financial Times

(China's reopening already faces challenges)

■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, 러시아 경제 타격에 실효적 - Financial Times

(Why ending energy imports from Russia remains essential)

■ ECB의 금리인상, 역내 주변국의 위험 증가 등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할 소지 - WSJ

(ECB Telegraphs Rapid Tightening, but May Still Disappoint Hawk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